

민주당서도 “바이든 결단해야”... 거세지는 사퇴 압력

바이든 논란... 미국 대선 블랙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지도 논란에 불을 당긴 TV토론 파문이 블랙홀처럼 미 대선을 집어삼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은 완주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동요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토론 전에 비해 벌어진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 진화를 위해 토론 참패 원인을 뻔뻔한 해외순방 일정 때문이라고 탓으로 돌렸지만 토론 도중 거의 졸 뻔했다는 ‘천기누설’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며칠간의 흐름이 중대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 ‘린든 존슨처럼’... “바이든 이번 주 결단해야” 커지는 압박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켓 의원(텍사스)은 2일 성명을 내고 36대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 증진과 관련한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베트남전쟁의 난맥상, 당내 신진후보의 부상 속에 재선 도전을 중도에 포기했던 존슨 전 대통령을 ‘몰모텔’로 삼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연방 의원 가운데 첫 공개적 사퇴 요구가 제기된 것이어서 확산할지 주목된다.

CNN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 전직적 의원과 기부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등 20여 명 중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꼽혔던 정치 거물인 조 맨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만류해 이를 막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 ‘비슷한 상황 20여 차례 목격’... 논란 지속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TV토론에서 재점화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도 논란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민주 의원, 첫 공개 사퇴 요구... 여론조사 격차↑, 경합주 ‘비상’

일부 조사서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 앞서... 다크호스 부상 ‘촉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레슬리 J. 맥네어 육군기지에 도착해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운데), 차남 한터 바이든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언론인 칼 번스타인은 지난 1일 CN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들이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반 동안 15~20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TV토론 이후에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바이든 진영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자료 보관 혐의를 수사한 로버트 허 전 특검이 2일 조사결과 보고서에 아들(보 바이든) 사망영도를 기억하지 못한 일 등을 적시했을 때만 해도 바이든 본인의 강한 반발과 3월 국정연설에서의 활력있는 모습으로 인지도 논란이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이번 TV토론 사태로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양상이다.

◇ ‘경합주서 격차 더 벌어져’... 미셸 오바마, 대안 후보 다크호스 부상?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참사” 이후 여론도 요동치는 분위기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유권자 1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 시 두 후보는 각각 43%와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승패의 열쇠를 전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CNN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래픽 워터머 미시간 주지사 등 ‘바이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의 조사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공격 재개... 가자 주민들 다시 피란길

칸 유니스 대피령 뒤 공습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일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이 곳으로 피란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다고 영국 BBC방송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전날 저녁 칸 유니스 동부 지역 등에 대피령을 내린 뒤 이 곳 주민들은 걸거나 수레, 오토바이, 트럭 등을 이용해 집을 떠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대피령의 영향권에 있는 팔

레스타인 주민은 25만 명으로 집계된다.

칸 유니스는 지난해 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로 진격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도시다.

수주간 이곳에서 공습과 지상전을 벌인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하마스’의 칸 유니스 부대를 파괴했다며 이 지역에서 철군했다.

그 뒤 초토화된 도시로 주민들이 돌아왔고, 이웃 도시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가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더 많은 피란민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잔당을 제거한다며

칸 유니스를 목표물로 삼으면서 피란민들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BBC는 많은 주민들이 전쟁 중에 5~6차례에 걸쳐 집을 떠나 떠돌아야 했다고 전했다.

한 피란민 남성은 BBC에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며 “이제 우리에게 집에 서 죽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소년은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대비하라는 군의 명령을 들었다”며 “이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싶다. 대피령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너무 많은 의료진이 떠나 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90년만에... 영국 보수당 참패?

“총선 64석”... 노동당, 650석 중 484석 ‘기록적 압승’ 전망

영국의 조기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리시 수낙(사진)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며 최악의 참패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선은 이번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전체 의석 650석 중 484석을 가져가며 1997년 토니 블레어 전 대표가 거둔 418석의 압승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64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1834년 보수당 창당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극우 영국개혁당은 7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서베이선은 내다봤다.

이번 예측은 여론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과거 투표 성향 등을 파악한 뒤 각 지역구의 연령별 분포 등 특성에 이를 대입해 예상 투표 결과를 도출해내는 ‘다중레벨 회귀분석 및 사후 계층화’(MRP) 모델을 통해 이뤄졌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MRP 모델 분석 역시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노동당의 압승을



예측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노동당의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수당의 ‘땃밭’이자 수백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노스요크셔 지역 표심도 노동당에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달 보도에서 현재로서는 노스요크셔 도시 리치먼드 등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과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당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도 종교행사 압사사고 최소 116명 사망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사망자수가 최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고는 전날 우타르프라데시주 주도 러크나우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던 도중 발생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장 프라산트 쿠마르는 AP에 이번 사고로 적어도 116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도 80명을 넘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텐트안이 무덤과 습해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발걸음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5000여명으로, 주최 측이 허가받은 참가자 5000여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게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엇 때문에 집단 패닉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힌두교 설교자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전직 경찰관으로, 과거 20년 동안 이 같은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도 힌두교 집회 압사사고 발생

하트라스 2일(현지시간) 힌두교 집회에서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던 도중 압사사고 발생. 100명 이상 사망



경찰은 주최 측 과실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종교행사와 관련한 압사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생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